

## 결 정

2018 - 1048 신문윤리강령 위반

1. 울산신문 발행인 조 희 태
2. 경북신문 발행인 박 준 현

## 주 문

**울산신문** 2018년 2월 6일자 1면 「울산시장 선호도 여론조사/김기현 37.2% 송철호 21.6%」 기사와 제목, **경북신문** 2월 27일자 1면 「경주시장선거 박병훈최양식 ‘각축전’ 치열」 기사의 제목, 3면 「경주지역 자유한국당 강세 여전...여론조사 전체 응답자 51.31% 지지」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치한다.

## 이 유

1. 위 신문들은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울산신문)= 『6·13 지방선거를 4개월여 앞둔 현재 울산시민들은 여야 각 정당의 울산광역시장 출마예상자 중 차기 시장감으로 현 김기현 시장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보수와 진보에 걸쳐 출마를 준비 중인 울산시교육감 선거 예비 후보자 7명 중 지지도는 노옥희 전 울산시교육위원이 가장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UBC(울산방송)가 전문여론조사 기관인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2일과 3일 이틀간 울산지역 19세 이상 남녀 2,506명(구·군별 500명)을 대상으로 올 지방선거 주요 예비후보 선호도 등을 조사해 5일 발표한 결과에서 이 같이 나타났다. 조사 결과, ‘여야 울산시장 출마 예상자 중 누가 시장이 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37.2%가 자유한국당 소속 김기현 시장을 뽑았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송철호 변호사가 21.6%로 2위를 기록했고, 같은 당 심규명 변호사가 5.8%, 임동호 울산시당위원장 5.1%, 이갑용 노동당 대표 4.0%, 김창현 민중당 울산시당 위원장 2.4% 순을 보였다.(중략)

울산시교육감 선거 출마 예상자를 대상으로 한 지지도 조사에선 13.0%를 얻은 노옥희 전 울산시 교육위원이 1위에 올랐다. 뒤이어 김석기 전 교육감(11.6%), 정찬모 전 시의회 교육위원장(11.3%), 구광렬 울산대 교수(9.5%), 박홍수 전 시교육청 교육국장(6.3%), 장평규 울산교원노조위원장(4.7%), 권오영 전 시의원(4.1%) 순이었다.(중략)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유·무선 전화조사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pm 1.96\%P$ , 응답률은 21.6%다. 자세한 조사내용과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ttp://www.ulsanpress.net/news/articleView.html?idxno=303938>>

(경북신문)<1면>= 『경북신문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코리아 정보리서치에 의뢰한 차기 경주시장선거 여론조사에서 공천이 곧 당선임을 보여주는 조사결과가 나와 경주시장 선거는 자유한국당 공천을 누가 거머쥐느냐에 따라 판가름 날 전망이다.』

이는 정당지지를 조사에서 자유한국당이 51.4%의 높은 지지율을 보였기 때문이며, 갈수록 공천싸움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번 경주시장선거 여론조사에서 적합도가 17.46%인 자유한국당 소속 현 최양식(66) 경주시장이 당내 경쟁자 중에는 1위지만, 적합도 18.30%인 박병훈(54) 전 경북도의회원이 근소한 차이로 선두다툼을 벌이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또 자유한국당 공천을 노리고 있는 주낙영(58) 전 경북도 행정부지사가 선두그룹과 오차범위 내에 진입했고 뒤를 이어 이동우 전 경주엑스포 사무총장이 바짝 추격하는 양상이다.

역시 공천경쟁에 나선 최학철 전 도의원 지지층도 확산돼 가고 있어 자유한국당 공천은 안개 속이라는 분석이다.(후략)』

<[http://www.kbsm.net/default/index\\_view\\_page.php?part\\_idx=7&idx=199348](http://www.kbsm.net/default/index_view_page.php?part_idx=7&idx=199348)>

<3면>= 『‘차기 경주시장으로 누가 더 적합합니까?’를 묻은 질문에서 박병훈 18.30%, 최양식 17.46% 근소한 차이로 선두 그룹을 형성, 주낙영 12.92%, 이동우 11.20%로 추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령별로는 20대의 경우 최양식 16.7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30대~50대는 박병훈 후보가, 60세 이상의 연령층은 최양식 후보가 21.31%로 높게 나타났

다.(중략)

※경북신문이 여론조사전문기관인 (주)코리아정보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이번 여론조사는 2월22일 경주시 거주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31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이용한 유선 RDD(69%)와 휴대전화 가상번호(31%) 병행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4.5%이고 표본추출은 성, 연령, 지역별 인구 비례 할당으로 추출했다.

표본오차는 95%의 신뢰수준에  $\pm 3.1\%p$ 다. 통계보정은 2018년 1월 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를 기반으로 성, 연령, 지역별 셀가중값을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http://www.nesdc.go.kr>) 여론조사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로테이션 방식을 엄격히 적용했다.』  
<[http://www.kbsm.net/default/index\\_view\\_page.php?part\\_idx=7&idx=199360](http://www.kbsm.net/default/index_view_page.php?part_idx=7&idx=199360)>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들은 6·13 지방선거 출마 예상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를 전하는 내용이다.

울산신문 기사는 울산시교육감 후보 여론 조사와 관련, 『13.0%를 얻은 노옥희 전 울산시 교육위원이 1위에 올랐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이어 『뒤이어 김석기 전 교육감(11.6%), 정찬모 전 시의회 교육위원장(11.3%)순이었다』며 순위가 가려진 것처럼 기술했다. 편집자도 「울산시교육감 선호도 1·2·3위」라는 문패 제목에 노옥희, 김석기, 정찬모의 사진과 이름을 게재해 순위를 매겼다. 그러나 이 조사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pm 1.96\%$ 다. 따라서 이들 세 후보의 지지도는 오차범위 내에 있다.

경북신문 기사는 경주시장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전하는 내용이다. 후보 적합도는 박병훈 18.30%, 최양식 17.46%, 주낙영 12.92%, 이동우 11.20% 등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pm 3.1\%$ 다. 따라서 박병훈, 최양식 주낙영의 적합도는 오차 범위내에 있다. 그럼에도 기사는 『차기 경주시장으로 누가 더 적합합니까?』를 묻은 질문에서 박병훈 18.30%, 최양식 17.46% 근소한 차이로 선두 그룹을 형성, 주낙영 12.92%, 이동우 11.20%로 추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순위가 가려진 것으로 기술했다. 편집자는 1면 큰 제목을 「경주 시장선거 박병훈최양식 ‘각축전’ 치열」로 뽑아 오차범위 내에 있는 주낙영을 배제하고 두 후보가 선두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묘사했다.

또 이들 후보 가운데 자유한국당 소속은 최양식 주낙영 이동우로, 이들의 지지율은 오차범위 내에 있다. 그럼에도 편집자는 작은 제목에 「한국당 지지 최양식 1위」라 달았다.

이처럼 기사들은 후보자들의 지지율이 오차범위 내에 있어 순위가 명확하게 가려진 것으로 볼 수 없는데도 마치 순위가 가려진 것으로 독자들이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기사 본문과 제목에 사용했다. 이는 ‘신문윤리강령’과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을 위반하는 것이다.

위 기사와 제목은 사실을 정확하고 충실하게 전달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공정한 기사로 보기도 어렵다. 이 같은 기사는 보도의 정확성과 공정성,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4조 「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전문,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 「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년 3월 14일

한 국 신 문 윤 리 위 원 회

위원장	김 용 담	기 용 대
위원	정 승 호	준
	장 명 국	장 명 국
	박 재 현	차 재 현
	장 인 철	장 인 철
	김 규 식	김 규 식
	강 희	강 희
	하 윤 수	하 윤 수
	김 영 모	김 영 모

---

○ 적용 조항

**신문윤리강령 제4조 「보도와 평론」** 우리 언론인은 사실의 전모를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보도할 것을 다짐한다. 우리는 또한 진실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바르게 평론할 것을 다짐하며,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용함으로써 건전한 여론 형성에 기여할 것을 결의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보도기사(해설기사 포함)는 사실의 전모를 충실하게 전달함을 원칙으로 하며 출처 및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또한 기자는 사회정의와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진실을 적극적으로 추적·보도해야 한다.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 ①미디어는 후보자나 정당의 지지율 또는 선호도는 신뢰구간에 따른 표본오차를 감안해 보도해야 한다. ②지지율 또는 선호도가 오차범위 안에 있을 경우 순위를 매기거나 서열화하지 않고 “경합” 또는 “오차범위 내에 있다”고 보도한다. ③위 경우 “오차범위 내에서 1, 2위를 차지했다”거나 “오차범위 내에서 조금 앞섰다” 등의 표현은 사용하지 않는다. ④위 경우 수치만을 나열하여 제목을 선정하지 않는다.